

기본에 충실한 낙농육우산업

(바람직한 산·학·연 협동체계)



최 일 신

안성산업대학교 낙농학과 교수

일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내용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아주 성공한 분이 대담 프로에 나와서 그 성공담을 들려 주었다. 축산물로서는 KS마크를 최초로 획득한 분으로 14세때 할머니가 주신 20수의 닭을 시작으로 지금은 몇 만수의 재벌 축산인이 된 분이다. 성공 비결을 묻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다른 분보다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감기도 누워 본 일이 없습니다." 라는 그분의 말씀은 특히 나오서는 매우 동감할 수 있는 말이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 현재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 기본이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특히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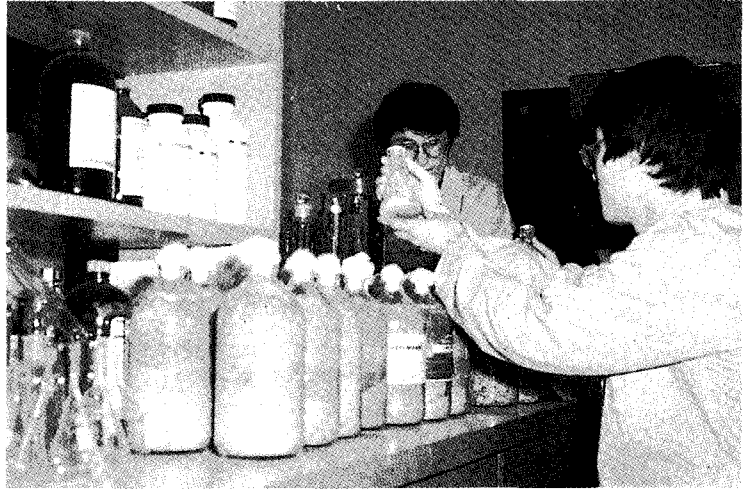
을 기업으로 성공 하는데는 이진리가 극히 당연한 이야기임을 동감한다. 필자가 약 20여년전 일본에서의 낙농연수 때 가장 강하게 느낀 바가 바로 일본인들은 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목장실습 첫날, 가르쳐주는 작업요령 중의 가장 기본은 빗자루 질이었다. 허리는 45도로 숙이고 대나무 빗자루는 한쪽 면만 마모되어 쓸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돌려가며 빗자루질을 하도록 하는 요령이다. 이 경험 때문에 요즘도 미화원들의 빗자루질이 예사로 보이질 않는다. 거의 100%의 미화원들의 빗자루는 한쪽면만 마모되어 있는 상태를 보며, 우리의 기본에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일본의 「우유·유제품」(養賢堂刊)이란 대학교재에 근대적인 유가공 이전의 일본낙농의 역사를 설명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1400여년전인 서기 560년경, 백제에서 귀화한 지총(智總)은 일본에 착유기술을 전수하였고, 그 아들인 선나(善那)는 천황에게 우유를 짜서 진상하였다.」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 낙농의 역사는 최소한 14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일 1400년전부터 우리들이 지닌 쫓겨는 기술을 계승시켜 왔다면 현재 우리 낙농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근대적인 낙농의 역사는 일본보다 훨씬 늦다. 그러나, 우연히 일본대학 도서관에서 얻은 오래

된 자료에서는 80여년전 함흥지역의 30여두 사육규모와 30ha 정도의 초지를 갖춘 목장을 매매한다는 광고가 일본 낙농잡지에 실린 것을 보았다. 어떠한 산업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낙농육우산업은 더욱이 몇 대를 걸친 품종개발이 필수적인 산업 중에 하나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2대째 낙농가들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은 낙농을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다.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산업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되어 온 것이 대견할 따름이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작금의 북한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농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이 몇 년만 지속된다면 한 세대의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는 이들이 성장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는 무서운 결말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UR이후에 불어닥친 낙농의 불황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우리와 같은 현상이 일본



에서는 91년 4월,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따라서 우리들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92년부터 계속 일본 낙농가들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과연 일본의 낙농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까를 주시하여 보았다.

96년 일본 방문시 그들은 지난 5년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의 시기로 비유하며 실낱같은 광채가 보이는 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 낙농가들이 이 5년간 노력한 그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먼저 그들은 그때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했다. 즉, 유우의 품종개발, 자급조사료증산, 경영합리화를 위한 규모확대등 각자 자신들의 상황에 적당한 최선의 노력을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젖소와 화우의 F1생산 및 화우 수정란의

젖소와의 수정등을 통한 경영개선, 경우에 따라서는 고품질의 홀스타인 고기 생산 등이다. 북해도의 한 지역은 농협과 낙농가가 노력하여 고품질의 홀스타인육 생산을 이루어 거의 화우의 품질에 손색이 없는 성과를 이룬 것을 필자는 직접 확인한 일이 있다. 물론 이 난국 타개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들의 협조는 말할 것도 없었다. 특히 대학들은 이미 30여년전에 대농민 통신교육이나 대학·연구기관의 학자들의 출장강의 등으로 현장애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93년부터 필자가 근무하는 안성산업대학교에서는 낙농육우농가를 위주로 한 축산농가의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거의 단기과정이나 특정의 기업체, 또는 일부 군장기 복무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농민에게 이러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②

한 기회는 생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같은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지 농가란 것이 개인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관념의 타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젊은 희망 있는 농업 후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인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가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타 직종의 종사자들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교육과정은 국내 최초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농가들이 매일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였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어 주 3일 학교에 나와서 조금은 타이트하지만 일반 학생들과 같은 시간과 분량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최단 4년에 모든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1, 2학년 동안은 주로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육내용인 교양과목 위주가 되며 3학년부서는 전공과목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설정하였다. 오랫동안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동떨어져 지내다보니 적응에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늦게나마 어엿한 대학생활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다. 보통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기술에 자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외로 기초적인 지식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학생 자신들도 지도하는 교수들도 느끼며 보람을 찾는다.

교수진은 본 대학교수 외에도 현장경험이 풍부한 연구소나 시험장의 연구진 또는 타대학의 교수진을 가능한 많이 접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명실공히 산·학·연 공동연구로 연계되고 있다. 또한 농업을 모르고 입학한 일반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일반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활용하면 최근 농과대학들의 어려움의 하나인 현장체험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농가들도 이론을 지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부분 자신의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다. 일반학생들은 나이 든 아저씨같은 동급생, 후배들로부터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경험을 듣게 되고 있다.

솔직히 위탁교육과정 개설에 대하여 처음에는 일부 타 학교교수나 학생들의 따가운 눈총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서로 존경하고 친애하는 관계가 되었다. 처음에 매주 3회씩 학교에 나오면 일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 걱정도 오히려 바쁜 일정 속에서 필요없는 사회활동이나 유희의 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보람된 생활이 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게된다. 일부에서는 농사 짓는데 대학이 뭐 필요하는가라는 비탄도 있으나 물론 의지가 강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역시 학교에 출석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이 없

이는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활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데에만 있지 않고, 많은 인간관계 또는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학문의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여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발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학력 중시 풍조를 극복 할 수 없다면 오히려 늦게나마 대학생활을 느낌으로서 자신감 있는 인생을 영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엇 보다도 우리의 낙농업은 너무 빠른 발전 때문에 낙농의 기본이 일부 무시되는 면이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 즉 가치관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가장 왕성하게 우리의 낙농업을 주도하는 30~40대의 낙농가들에게 늦게나마 이러한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2세를 또 우리는 교육하게 될 것이리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농업교육에서 이러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고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 나라의 사활이 지도자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있듯이 우리의 농업·낙농업도 너무 그 가치를 부의 축적에 두는 경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낙농업계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낙농인

후세교육에 정열을 쏟을 만한 지도자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 같다.

우리의 낙농이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느끼고 있지만, 과연 우리 낙농 발전을 기원하는 많은 학자, 연구자, 농민들이 선진낙농국의 그들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경험하는 일본의 낙농육우 농가들의 노동시간은 년중 하루 10시간씩은 노동하고 있다. 물론 관련 학자, 연구자들도 우리보다는 더 일찍 출근하여 더 늦게 퇴근하며 농가들의 애로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정부도 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막대한 지원을 하여 일부는 중소기업도 부단하여 산·학·연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기술 개발, 신소재 개발, 경영합리화 방안 개선등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농업분야에도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주도하는 연구가 아니고 농가의 실제적인 애로가 대학이나 연구소등과 연계되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가들도 일부 현금이나 현물의 제공을 통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인 농업 기초연구가 무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연구의 성격규정이

소를 키운다는 것, 그야말로 거짓이 없는 직업이다. 또한 낙농은 종합산업이다. 모든 지식인의 근본이 되는 교과서에 충실 할 수 있는 자세로 이제 다시 우리의 낙농을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민에게서 신뢰받고 국민에게 최고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직업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는 낙농을 생각하는 산·학·연의 진정한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분명히 이루어져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목적이 현장애로가 되었던 기초연구가 되었던 분명한 연구목적을 확실히 지닌 연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학계에서 있어야 하듯이, 오래된 자신이 경험만을 고집하여 학문을 무시하는 낙농가들의 풍조도 불식되어야 한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용기를 본 적이 있다. 대학원 시절 일본학계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노교수님이 학부3학년 학생의 매우 간단한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날 엄청난 공부를 해온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이든 모른다고 하는 것이야 곤란하겠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그 나이에서,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몰라서는 안될 것을 모를 때가 있다. 그러나, 역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학벌이 나이가 경력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말로 발전 할 수 있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를 키운다는 것, 그야말로 거짓이 없는 직업이다. 또한 낙농은 종합산업이다. 일반 작물재배부터 컴퓨터까지 복합적인 기술의 결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의 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는 어느 분야에 관하여도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두에서의 어느 축산인의 말대로 기본에 충실하여야 함은 낙농경영의 필수이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교과서 같이 답답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세태가 우리의 낙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전체를 어렵게 만든 원흉인 것이다. 모든 지식인의 근본이 되는 교과서에 충실 할 수 있는 자세로 이제 다시 우리의 낙농을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민에게서 신뢰받고 국민에게 최고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직업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는 낙농을 생각하는 산·학·연의 진정한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

<필자 연락처:0334-70-5123>